

서울 서초구 반포동

김연자 '아모르파티' 애창곡 들고 추석 안방 진격

1959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난 김연자는 '노래 신동' 소리를 듣고 자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다. 이발소를 운영하던 아버지는 가게에 가수 이미자의 노래를 틀어 놓고 손님 앞에서 가장 연습을 시키는 등 가수로 키우고자 적극 후원했다.

초등학교 시절 김연자는 5년간 가요 교실에 참석하며 노래 연습에 열중했다. 당시 또래들은 동요를 즐겨 불렀지만 김연자만큼은 달랐다. 트로트를 메인으로 불러 어린 나이부터 독특한 개성을 드러냈다. 이후 아버지는 중학교 3학년 때 가수가 되라며 서울행 열차표를 끊어줬다.

14세 때 홀로 상경해 고교 진학 후 1974년 TBC 전국가요 신인스타쇼에서 우승하며 재능을 인정받았다. 같은 해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오아시스레코즈에서 김학송 씨가 작곡한 '말해줘요'로 데뷔했다.

1977년 '여자의 일생(女的一生)'을 발표하며 일본에서 데뷔해 신예 스타로 떠올



랐지만 서투른 일본어와 준비 부족으로 실패했다. 결국 진출 3년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아 귀국했다.

1981년 트로트 매들리 앨범 '노래의 꽃다발'이 성공하면서 스타덤에 올라 재기 기회를 잡았다. 이듬해 정통 트로트 '진정인 가요'를 비롯해 1984년 '수은등'이 잇따라 히트하면서 인기 가수 반열에 올랐다.

1988년 일본 시장에 재도전한 그는 서울 올림픽 찬가 '아침의 나라에서'를 개사한 곡으로 오리콘 차트 엔카 부문 1위를 15번

차지하며 '엔카의 여왕'으로 등극했다. 이후 '암야항로' '도시호의 눈 노래' '뜨거운 강' 등 여러 곡으로 현지에서 대형 엔카 가수로 인정받았다.

특히 귀감이 됐던 건 일본 무대에 설 때마다 한복을 입고 올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연자는 "한국인으로서 전통의상을 입는 것은 당연하다. 현지 교포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굉장히 좋아해주시다"며 "일본뿐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한복을 입고 갈 예정이다"고 말하며 한국 문화 알리기에 노력했다.

일본 활동 전성기 때는 회당 출연료가 1억 원에 육박할 정도의 대형 가수였지만 결혼 생활은 부침이 있었다. 1982년 18세 연상의 재일 교포 2세와 결혼한 뒤 2012년 아이도 없이 파경에 대중에 충격을 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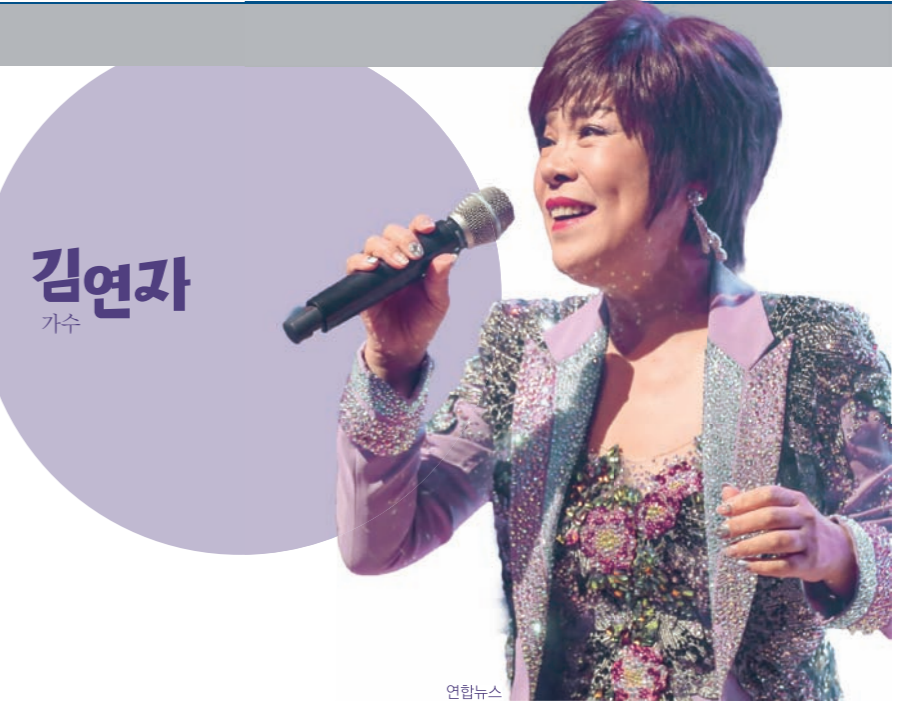
슬픔을 뒤로하고 2013년 트로트와 EDM을 접목한 '아모르 파티'를 발표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의미의 이 곡은 발

매 당시 큰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2017년 우연히 무대를 본 가수 엑소의 팬이 SNS에 '이 노래를 40초만 들어보라고' 올리면서 역주행을 시작했고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가수로 거듭난 그는 '10분 내로' '블링블링' 등 다양한 곡을 발매하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김연자가 흥익기획 대표 홍상기 씨와 연인으로 발전하며 사랑에 빠졌다. 두 사람은 13년째 열애 중이며 결혼을 약속한 상태다. 결혼과 관련해 8월1일 SBS 예능 '강심장리더'에서 "김연자 기념관이 완공되면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한다"며 "전남 영광에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제 생각엔 빨라야 3~4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70세를 넘지 않았을 때 완공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연자는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



김연자 가수

연립뉴스

아 가수 진성과 함께 KBS2 예능 프로그램 '김연자★진성 한가위 빅소 만월만복'에 출연한다.

전 국민의 애창곡부터 두 가수의 팔색조 매력을 담아낸 다양한 스펙트럼 무대는 물론 인생이 녹아있는 감동의 무대를 선보이며 29일 오후 8시50분 방송된다. 서로 팬이라 칭하는 두 사람이 방송 최초로 함께 꾸미는 한가위 특집 공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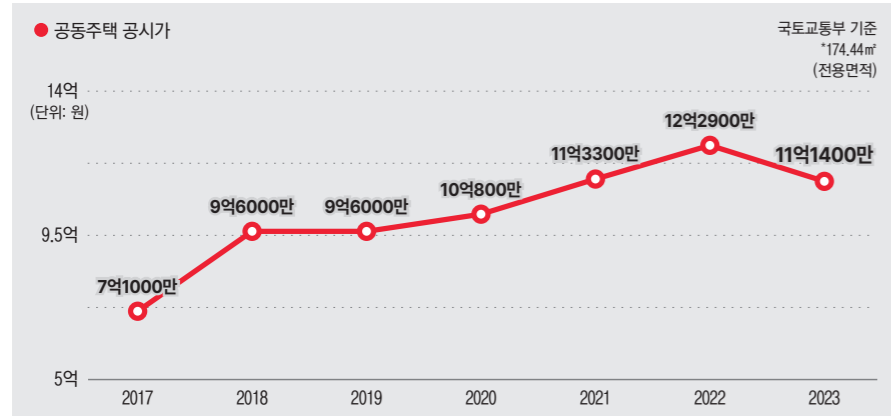
이와 함께 김연자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빌딩(사진)도 화제다. 이 빌딩은 대지면적 303㎡(약 118.88평), 연면적 861.75㎡(약 260.67평),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하철 7호선 내방역과 고속터미널역 중간쯤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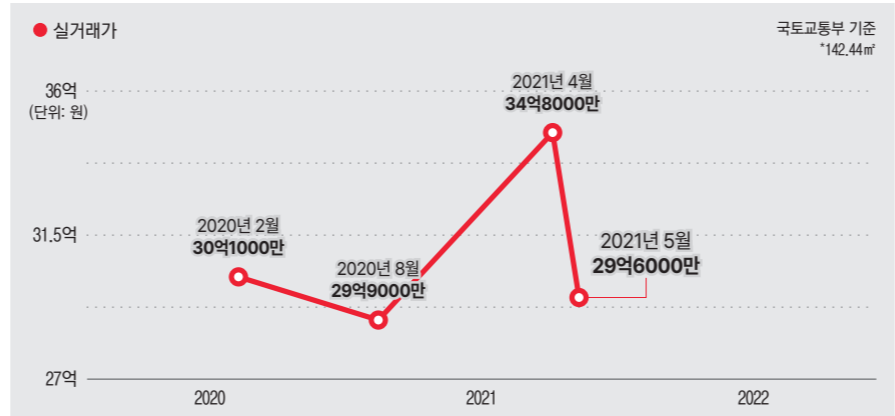
두 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역세권 빌딩은 아니지만 주변에 서리풀공원과 몽마르뜨공원이 있어 풍부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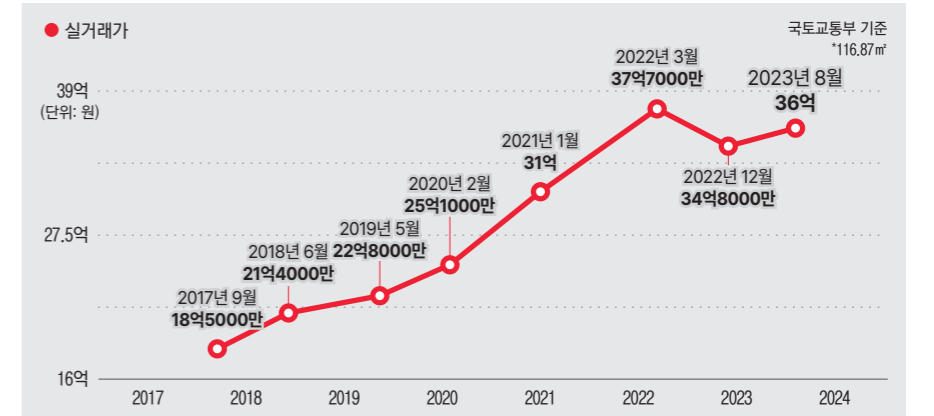
월탄빌(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씨밋(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장은 전엑스코 대표이사

서장은 전 엑스코 대표이사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 행정법대학원에서 석사, 중앙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클라우드나인 부사장, 클라우드나인 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공보특보, 서울시당 대변인, 지방행정개혁특위 위원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과 한-중친선협회 부회장, 서울시 정무조정실 실장, 주 히로시마 총영사,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14~2017년 주 히로시마 총영사로 재직하면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공연, 히로시마 기업들과 교류 등 국제행사를 이끌었



다. 17·19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갑에 출마한 이력도 있다. 2019년 10월 지방 최초의 전지컨벤션센터인 대구 엑스코 대표로 선임돼 그해 12월 고객 관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해 엑스코를 고효율 사업구조로 일하는 조직으로 정비했다.



백영호 현로보이르테 최고사업개발책임자(CBDO)

백영호 로보이르테 최고사업개발책임자(CBDO)는 대우산업개발 외식부문 본부장, 주노 대표이사, 파리크라상 음식사업본부 전무, 스타비스코리아 수석부장, 제너시스BBQ 대표이사 부사장 및 사장 등을 지낸 프랜차이즈 전문가다. 2019년 2월 제너시스BBQ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해 윤경주 부회장과 함께 BBQ 사업을 총괄했지만 6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9월 자리에서 내려왔다. 지난해 11월 자동차와 조리 로봇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고 실제 매장에 적용한 브랜드 라버트치킨을 운영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 로보이르테가 그를 CBDO로 영입했다. 취임 후 라버트치킨을 비롯한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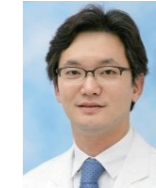


보이르테의 국내 식음료(F&B)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라버트치킨은 전국에 총 1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월 싱가포르에 가맹 1호점을 개소한 것을 비롯해 올 하반기에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도 1호점을 열 계획이다.



문인석 현연세대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교수

문인석 연세대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교수는 연세대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전공의, 연세대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강사, 중앙대의대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임상조교수, 연세대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임상조교수·임상부교수·부교수 등을 지냈다. 청신경중양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히는 문 교수는 2015년 국내 최초로 제2형 신경섬유종증 환자에서 청신경간이식술을 성공하며 뇌종양으로 청력을 소실한 환자에게 소리를 선물했다. 2020년에는 청신경중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



전 청력검사 및 평형기능검사,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얻은 수술 전 종양의 크기, 청력, 어지럼 정도 등을 입력하면 청력 보존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딥러닝 시스템을 개발해 환자 맞춤형 치료 시대를 열었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코람코 '방학 신동아1단지' 재건축 예비신탁사 선정

서울 도봉구

코람코자산신탁은 주민동의율 91%로 서울 도봉구 '방학 신동아1단지 신탁방식 재건축' 예비신탁사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코람코자산신탁에 따르면 25일 코람코 컨소시엄(코람코자산신탁·교보자산신탁)과 신동아1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 방학동 신동아1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식에는 김제균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코람코자산신탁 장순서 정비사업본부장·교보자산신탁 진영무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등 이번 사업 관련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번지 일원에 있는 방학 신동아1차 아파트는 총 3169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준공 37년 차(1986년 준공)를 맞는 노후 단지다. 코람코 컨소시엄은 기존 총 30개동·3169가



코람코 컨소시엄과 신동아1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25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코람코자산신탁

구 규모의 단지를 최고 높이 40층·24개 동·총 386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갖춘 주거단지로 탈바꿈 시킬 예정이다. 아파트 동수를 줄여 동간거리가 넓은 쾌적한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부동산신탁사가 재건축·재개발 등의 시행을 맡아 사업을 주도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최근 서울 여의도와 목동의 재건축 조합들이 신탁방식 정비사

업을 채택하고 있고 지난 달에는 강남권에서는 최초로 서초동 삼풍아파트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컨소시엄에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맡기기도 했다.

장순서 코람코자산신탁 정비사업본부장은 "속도감 있는 사업진행으로 코람코를 예비신탁사로 선정해주신 소유자분들에게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인천광역시

인천시는 상업·준주거 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차·주거환경시민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다. 2009년 2월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시에는 약 4만 가구가 공급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및 주택 건설기준 등이 완화·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이면도로 주차난·시민 안전 위험·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나타내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16년 9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 당 1대로 강화해 무분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증가를 억제해 왔으며 군·구에서도 세대별 주거전용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허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이 시가 마련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건축 심의 기준 강화·도시계획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방안이 담겼다.

우선 시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조성 등 건축위원회 심

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예상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불허하도록 지정하고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가로주택·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 유사 건축물로 인해 심각한 이면도로 주차난 등이 발생하는 지역은 해당 군·구와 긴밀히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